

국 어

떨리는 마음을 갖고 시험을 치르셨을 수험생 분들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 아름답고 밝은 거겠지요... 다소 어두울 수 있는 수험 생활을, 먼 훗날 웃으며 추억할 날이 올 것을 믿고,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남은 서울시와 지방직, 국가직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더 철저히 공부하셔서 시험장을 나오는 그때 흥분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노량진 지안 공무원 신예 드림)

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③ 연예인을 봤던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므로 과거 회상 선 어말어미 ‘더’를 쓰는 것이 옳다. 따라서, ‘좋더냐(해라체)’를 더 친근하게 말한 ‘ 좋던’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오답풀이) 어미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전달할 때 쓰이고, 어미 ‘-대’는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할 때 쓰인다. 따라서, ①은 직접 화자가 듣지 못한 사실을 다른 이에게 묻고 있으므로 간접 경험을 표현하는 ‘-대’를 써야 한다. ②, ④는 직접 말 하는 것과 직접 본 것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대’를 써야 한다.

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③ ‘대로’가 ‘내키다’의 관형형 ‘내키는’ 뒤에 쓰인 것을 보면 ‘대로’가 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 것이 옳다.

(오답풀이) ② ‘도외시하다(상관하지 않거나 무시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③ ‘대리전으로밖에는’으로 붙여 써야 한다. ‘밖에’가 ‘바깥’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그것 말고는’, ‘그것 외에는’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지’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문장에서는 시간과 관련 없는 추측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회복될지’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② ‘한하다(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다)’는 ‘~에 한하다’의 형태로 쓰인다. 따라서, ‘참가 신청자에 한하여 교부한다’가 옳다.

(오답풀이) ①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처럼 ‘에서’는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따라서,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이라는 문장은 설계도가 근거임을 나타내므로 조사가 올바르게 쓰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비치하다(마련하여 갖추어 두다)’는 주로 ‘...을 ...에 비치하다’의 형태로 쓰이므로 제시된 문장은 적절하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처럼 주로 ‘에도 불구하고(얼마나 멀리까지 아니하다)’의 형태로 쓰이므로 제시문은 적절하다 하겠다.

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놓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② 제시문의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모두 ‘지엽적(거나 중요하지 아니하고 부차적인. 또는 그런 것)’인 것을 핵심보다 확대하여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에서 경계하는 태도는 ‘핵심과 지엽적인 것이 바뀌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 ‘본말전도(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거나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뀐 상태가 되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순서를 거치는 수행단계가 뒤따른다는 불교 용어

5.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ㄷ-ㄷ
③ ㄷ-ㄷ-ㄱ-ㄴ ④ ㄷ-ㄷ-ㄴ-ㄱ

③ 지시어 ‘그’ 혹은 접속 부사 ‘그러나’ 등은 문장의 첫머리에 오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ㄷ’이 처음에 오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한 제시문은 인간이 빛을 이용하므로써 얻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 졌다.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을 발달될 수 있었다.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6.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②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③ ‘리더십의 부재’란 ‘혼자 가버리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을 번거롭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개념을 적절하게 빗대어 설명한 것은 ③번이다.

(오답풀이) ②는 ‘올바른 리더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답이 될 수 없다.

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팽과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

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팽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짚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등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 ① 사물놀이의 가치
② 사물놀이의 소리
③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④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① ‘사물놀이의 가치(의의)’는 제시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2문단을 보면 사물놀이의 소리를 ‘자연 현상’에 빗대며 설명하고 있다. ③ 1문단을 통해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4가지 타악기로만 연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④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앉아서 연주하는 ‘앉은반’으로,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를 ‘선반’이라 설명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아, 답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 ①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②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③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④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③ 2문단에서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라고만 나와 있다. 즉, 간접 발화가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하는지는 제시문만으로는 확인

이 어렵다.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윈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의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겠는가

— 이곡, ‘차마설(借馬說)’—

- ①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②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④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공통점)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은 ‘비교’이다. 이 글은 ‘설(說)’이라는 고전 수필로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일반적인 교훈으로 확장시켜 적용하는 ‘유추’가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말을 빌려 탄’ 경험을 통해 삶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있다. ②, ③ ‘우의적’이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을 빌려 탄’ 일상적 경험에 빗대어 ‘무소유’의 깨달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수필이다.

10.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체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았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았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②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③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④ 제시문은 사상 체계에서 참되지 않으면 사상을 폐기하듯 법제도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법제도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제시문의 내용 전개 방식은 범주가 다른 두 대상의 유사점에 근거해 내용을 전개하는 ‘유추’가 사용된 것으로 보통 ‘A:B이듯이 C:D이다’가 성립한다. 따라서 ‘범주가 다른 ‘인생’과 ‘여행’을 두 대상의 유사점에 근거에 설명하고 있는 ④번이 정답이다.

(오답풀이) ① 연역 추론 방식 중 후건(결과)을 부정함으로서 전건(조건)을 긍정하는 가언 삼단 논법이 사용되었다. ② 남자와 여자의 생각 방식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다. ③ 불충분한 사례로 일반화시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1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쳐지네.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④ 오는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① ‘하나에 천 원을 쳐줄 테니 그걸 모두 나한테 팔아라.’에서와 같이 ‘쳐주다’는 ‘셈을 맞추어 주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더 붙어, ‘백 원씩으로 치다’라는 문장을 연상해 보면, ‘쳐’가 ‘치다’의 활용인 ‘치어’의 축약형인 것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② ‘쳐지다’는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다’는 뜻이다.

③ ‘쳐대다’는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는 뜻이다. ④ ‘쳐박히다’는 ‘쳐박다(마구 쭈서 넣거나 폭 밀어 넣다.)’의 피동사이다.

1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④ 보조 용언은 본용언을 보충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로 자립성이 없어 독자적으로는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보이다’는 ‘보다’의 피동형으로 ‘젊다’는 용언을 빼고서도 문장이 성립되므로 본용언이다.

(오답풀이) ① ‘오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② ‘버리다’는 앞말이 나타

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③ '주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1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②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③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결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④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② '사고(思考)'는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뜻이고, '비판(批判)'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는 의미상 반의어 관계인 단어들이다.

(오답풀이) ④ 결미(結尾): 글이나 문서의 끝부분 / 모두(冒頭): 말이나 글의 첫머리

1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盼)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②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③ 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④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로이다.

④ 문맥상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하였으므로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해낸 것이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한다는 뜻의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좌고우면(左顧右盼):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② 암중모색(暗中摸索): 1.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다. 2. 어렵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하다. 3.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하다.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三冬)에 ㉠베옷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뿔도 켜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① ㉠: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② ㉡: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③ ㉢: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④ ㉣: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② 제시된 시조는 작가 조식이 종종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감정을 읊은 것이다. 조식은 '암혈(巖穴)-동굴'에서 '㉡눈비(시련)'를 맞고 지내고 있는 '㉠베옷'입은 선비-포의한사(布衣寒士: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선비)-이기에 종종 임금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유학을 공부한 선비로서 임금의 승하 소식에 애도(눈물겨워)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산'은 임금(해)이 승하한 곳이므로 자연 속에 은거하고 있는 조식의 위치와는 구별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16.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랑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랑-'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② 면도칼, 서릿발, 원둥이, 장난기
 ③ 깍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④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① 팔호 안은 합성어의 예를 넣어야 한다. (자주 등장하는 접사들은 암기를 따로 해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짓(몸을 돌려 움직이는 동작. 주로 좋지 않은 행위나 행동을 이른다.)'이 동작 명사이므로 '손짓'은 합성어이다. '고추장'의 '장'은 간장, 고추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명사이며, '장군감'의 '감'도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풀이) ② 면도칼(어근+어근: 합성어), 서릿발(어근+어근: 합성어), 원둥이(어근+접사: 파생어), 장난기(어근+접사: 파생어) ③ 깍두기(어근+접사: 파생어), 선생님(어근+접사: 파생어), 작은형(어근+어근: 합성어), 핫바지(접사+어근: 파생어) ④ 김치찌개(어근+어근: 합성어), 돌다리(어근+어근: 합성어), 시나브로(단일어), 암탉(접사+어근: 파생어)

17.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바쁘게 돌아가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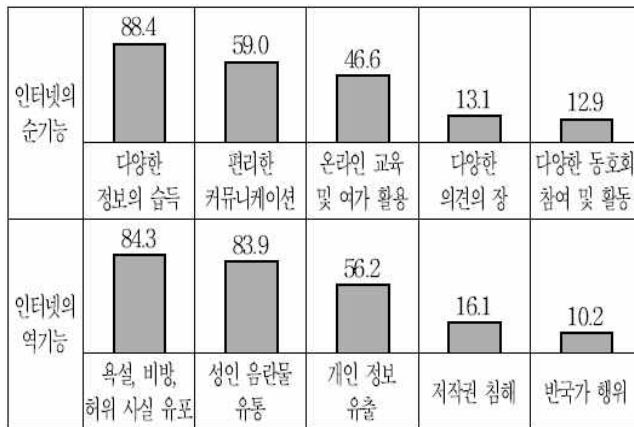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③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① 글쓴이는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회임을 설명해 주면서, 이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각을 인문학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혼란한 세상 속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①번이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다고 하겠다.

(오답풀이) ② 현대 사회의 모습(현상)을 분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면서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는 나와 있지만, 그로 인해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18.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 중복 응답)



- ①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 ④ 인터넷의 역기능 중 '허위 사실 유포'를 활용하여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역기능이 있다고 자료에서 나열한 '순기능'도 쓸 수 없도록 인터넷을 금지하는 것은 제시된 자료를 일부만 활용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글쓰기라고 보기 힘들다.

- (오답풀이) ① 인터넷의 순기능 중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습득'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 ② 인터넷의 역기능 중 '개인 정보 유출'을 통해 글을 쓸 수 있다. ③ 인터넷의 역기능 중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을 통해 글을 쓸 수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① ㉠은 자신이 떠난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② ㉡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 ③ ㉢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 ④ ㉣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 ④ <보기>는 이용악의 생애를 제시하며, 사를 시인의 생애와 관련시켜 감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표현론) 여기서 시의 화자는 '눈'이 오는 것을 보며 눈이 많이 내렸던 떠난 고향(㉠북쪽)을 떠올린다. 더불어 그곳에 남기고 온 사랑하는 '㉡너'(가족 혹은 연인)도 떠올린다.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은 화자가 처한 외롭고, 고독스럽고 고달픈 현실을 의미하며, 이런 추위가 '잠'을 깨우고 있으므로, '㉣잠' 자체를 화자의 감정을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북쪽 가족과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잠'이 달아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2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은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 ① 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든다. -‘성공:습관’
- ②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책:장난감 블록’
- ③ 로댕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댕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돌:손’
- ④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내면:옷차림’
- ④ ‘그림’과 ‘액자’의 의미 관계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그림의 단점을 액자가 보완한다(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 구조의 문장이 성립하는 것은 ④번으로 ‘내면을 보여줄 수 없다는 단점을 옷차림이 보완해 준다.’이다. 따라서, 답은 ④번이다.